

【영산대 화쟁연구소 2022 전반기 학술대회】

무아, 1인칭의 삭제인가 새로운 1인칭인가?
-무아와 화쟁 그리고 원효-

- 일시: 2022.7.2. 토/오후 2시 - 6시

- 장소: ZOOM 화상 회의

- Zoom 회의 참가:

<https://zoom.us/j/91038918054?pwd=d21XM2FEZGhaeWFXQWxiQnF4QTNidz09>

회의 ID: 910 3891 8054

암호: 70s1Te

(인터넷 주소를 통해 회의 ID나 암호 없이 입장)

- 발표자료집: 당일 Zoom 채팅창에 게시

●모시는 글

화쟁은 언어주체들의 주장이 지닌 타당성/부당성을 조건적·연기적으로 읽고 여러 타당성을 어울리게 하여 더 좋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상호 포섭적 언어 능력이자 태도입니다. 따라서 쟁론과 화쟁은 공히 1인칭 언어 주체를 조건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쟁론은 관심과 주장의 조건성을 외면하는 1인칭의 불합리한 태도이고, 화쟁은 관심과 주장의 조건성을 성찰하여 ‘현상 발생의 사실성’을 추구하는 1인칭의 합리적 역량입니다.

‘무아와 1인칭’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와 직결되는 궁극적 관심 사안이고, 차이로 인한 모든 쟁론의 화쟁 능력과 직결되며, 소위 ‘무아·윤회’의 철학적 난점 해결과도 연관됩니다. 그런데 붓다의 무아 통찰에 대한 해석학/교학들 가운데는 ‘무아와 1인칭의 문제’에 관해 시선의 혼란이 목격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기초를 다져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박태원의 <무아는 1인칭의 삭제인가, 새로운 1인칭의 등장인가?>는 ‘무아와 1인칭’의 관련 문제들을 원효의 시선과 함께 다룹니다.

2. 우동필의 <무아·윤회의 인간관>은 무아 담론의 주요 쟁점인 무아·윤회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면서 무아의 인간관이 갖는 의미에 접근해 봅니다.

3. 이혁주의 <스피노자의 개체론과 인간의 개체성>은 변화·관계의 무아적 인간관과 잘 소통되는 스피노자의 인간관을 그의 복합적 관계의 개체론을 중심으로 파헤쳐 봅니다.

박태원(화쟁연구소 소장)

● 일정과 내용

시 간	내 용	발 표 자
7월2일 오후 1:30-2:00	ZOOM 회의실 입장	
2:00-2:40	주제 발표1 <무아는 1인칭의 삭제인가, 새로운 1인칭의 등장인가? - 화쟁과 무아 그리고 원효 ->	박태원(화쟁연구소소장)
2:40-3:20	주제 발표2 <무아·윤회의 인간관>	우동필(전남대)
3:20-3:30	휴식	
3:30-4:10	주제 발표3 <스피노자의 개체론과 인간의 개체성>	이혁주(성균관대)
4:10-6:00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사회(박태원)